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서 문

1. 교회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가톨릭 대학교는 제도로서의 대학교가 생겨났던 그 순간 자체에까지 소급될 수 있는 전통의 과정 안에 놓여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인류의 선을 위한 창조력 및 지식 보급의 비할 데 없는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전체 영역(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 곧 대학교는 소명에 의해, 탐구와 교수 그리고 지식에 대한 공동 사랑 안에서 자유로이 자기 선생들과 관련을 맺는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게 된다.¹⁾ 다른 모든 대학교와 더불어 가톨릭 대학교는 성 아우구스티노에게 그토록 귀중한 진리에 대한 기쁨(gaudium de veritate), 즉 탐구하며, 발견해 내고 모든 인식 분야 내에서 진리를 전달하는²⁾ 기쁨을 함께 나눈다. 가톨릭 대학교의 특수한 과제는 “마치 정반대의 것인 양 너무나 자주 대립된 위치에 있으려는 경향을 지닌 실재의 두 질서 즉 진리에 대한 추구 그리고 진리의 원천을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을 지성적 노력에 의해 실제로 결합시키는 것”³⁾이다.

2. 수년 동안 나 자신이 대학교 생활의 유익한 경험을 넓혔다. 대학 생활은 진리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또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인류에게 보다 훌륭히 봉사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사유하기를 배우는 모든 이에게 사심 없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이와 더불어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나의 깊은 경의를 나타내고 또 그 대학교 내에서 다양한 지식의 영역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고에 대한 나의 심심한 사의를 표현하고자 한다. 특별한 방식으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사도적 여행 중에 나로 하여금 여러 대륙의 가톨릭 대학교 공동체들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무수한 만남 중에 누린 기쁨을 표명하고 싶다. 가톨릭 대학교는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모든 문화의 중심부 내에서 엮어 내고 있는 창조력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보증해 주는 표정인 것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변화하는 현대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상황 내에 그리스도교 문화를 새로이 변창시킬 수 있다는 근거 있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 준다. 우리 시대는 분명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또한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 하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나는 또한 비가톨릭계 대학교에서 교수와 탐구에 전념하고 있는 무수한 많은 가톨릭 학자들에게도 나의 기쁨과 감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학자 및 과학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들의 과업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선익을 위하여 값진 보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들의 현존은 진리와 천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심 없이 추구하게 하는 데에 꾸준한 자극제가 된다.

3. 나는 교황 재직 시초부터 이 같은 상념들과 정감들을 나의 가장 친근한 협력자인 추기경들과 함께, 가톨릭 교육성과 더불어, 그리고 전 세계의 남녀 지성인들과 함께 나누어 왔다. 사실 교회의 현대 문화와의 대화는 “우리가 20세기의 종료를 맞이하려는 이즈음에 교회와 세계의 미래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는”⁴⁾ 산 영역이다. 단 하나의 문화 즉 인간의, 인간에 의한 그

리고 인간을 위한 문화가 있을 뿐이다.5) 또한 교회는 자신의 가톨릭 대학교와 인본주의적 및 과학적 유산 덕분에 인간성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나의 전임자 바오로 6세가 유엔에서 천명하였던 바와 같이6) 인류와 세계의 신비들을 계시의 빛 안에서 밝혀 내면서 탐구한다.

4. 진리의 근원에 무조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가톨릭 대학의 영예이고 책임이다. 이는 가톨릭 대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아울러 교회의 선익에 봉사하는 방식이다. 교회는 “진리가 자신의 진실한 협력자라는 것…… 그리고 인식과 이성이 확실히 신앙에 봉사하는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7)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가톨릭 대학교는 자연과 인간과 하느님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자유로이 추구하는 자세로 특징지어진다. 현시대는 이러한 종류의 사심 없는 봉사, 즉 기본 가치인 진리의 의미를 선포하는 봉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 같은 기본적 가치 없이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편적 인본주의를 통하여, 가톨릭 대학교는 최고의 진리 곧 하느님과 근본적으로 맺고 있는 연관 속에서 추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대학은 “길ियो 진리요 생명”8)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식의 모든 길에 정진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러나 열정을 갖고 진리 추구에 헌신한다. 로고스가 보내신 지성과 사랑의 성령께서 지성을 구비한 인간 인격으로 하여금 궁극적 실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과 로고스가 그 궁극 실재의 근원이고 목적이며 또 그분 홀로 하느님의 지혜를 충만히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톨릭 대학교는 자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느님의 지혜 없이는 세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5. 온전한 진리 추구의 맥락 안에서 신앙과 이성 간의 관계가 드러나고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당신이 믿기 위하여 인식하시오”, “당신이 깨닫기 위하여 믿으시오”라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초대는 계시와 자연의 보화를 대담하게 탐색하는 사명을 지닌 가톨릭 대학교에 해당되는 말이다. 대학교는 지성과 신앙의 결속된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 안에서 창조되었고 범죄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층 더 놀랍게 쇄신되었고 성령의 빛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자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개발시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6. 가톨릭 대학교는 그 자신이 복음의 구원 메시지의 형용할 수 없는 보화와 인식의 무한하고 다양한 영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모든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비할 데 없이 풍요로운 대화를 진척시키도록 해 준다. 복음의 보화는 인식의 무한한 영역 안에서 문화에 의해 구체화된다. 인간의 생명은 문화에 의해 그 품위를 지니게 되고 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충만을 발견하게 되는 한편, 모든 차원 안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새롭게 하는 복음은 인간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문화를 위해서도 의심 없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준다.

7. 과학과 기계 기술에 있어서 눈부신 결실을 거두는 발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현대의 세계 안에서 가톨릭 대학교의 과제는 갈수록 증대되는 중요성과 절박성을 띤다. 과학적 및 기계 기술적 발견들은 거대한 경제적 성장과 산업 발전을 가져오지만 또한 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의미 추구를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의미 추구를 통해서만 새로운 발전이 개인들과 전체 인간 사회의 선을 위하여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대학교의 책임이라면 가톨릭 대학교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런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즉 가톨릭 대학

교는 그리스도교적 영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탐구 안에 도덕적, 영적 및 종교적 차원을 포함시키고 또 인간 인격의 총체성에 비추어 과학과 기계 기술의 결실들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맥락 안에서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으로서 그리고 “가톨릭인 것”으로서도 부단히 쇄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과학적 및 기계 기술적 탐구의 사회생활과 문화의 의미 자체이긴 하지만 한층 더 깊은 수준 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인격의 의미 자체”¹⁰⁾이기 때문이다. 부단히 쇄신되려면, 가톨릭 대학교는 그 자신의 가톨릭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전반적 추구, 여하한 종류의 특정한 이득에 종속되지 않으며 그것에 의해 한정되지도 않는 진리 추구를 주도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8. 교회 대학과 대학교를 위해서는 이미 교황령 Sapientia Christiana¹¹⁾를 반포하였으므로, 나는 가톨릭 대학교를 위하여 그와 유사한 문헌을 일종의 “대헌장”으로 제시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교회가 대학교의 영역 안에서 오랜 동안 쌓아 온 풍부한 경험에 의해 보완되고 또 대담한 창조성과 확고한 신의를 필요로 하는 미래의 위업을 약속해 주는 문헌을 반포해야겠다고 절감하였던 것이다.

9. 이 문헌은 특히 가톨릭 대학교를 운영하는 총 · 학장들, 각 대학교 공동체들, 이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주교들과 수도회들 및 교회 기관들 그리고 고등 교육의 위대한 사명에 종사하고 있는 무수한 평신도들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문헌의 목적은 “더 높은 문화를 추진하는 모든 연구 분야 안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이른바 공적이며 견고하고 보편적인 현존을 성취하고 또한 이런 학교의 학생이 실제로 출중한 지식을 쌓아 사회의 중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맡고 세상에 신앙을 증거하려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도록 해 주려는 데”¹²⁾ 있다.

10. 나는 가톨릭 대학교에뿐 아니라 또한 무수한 가톨릭계 고등 교육 기관들에게도 이 문헌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 기관들은 그 본질과 고유한 목표에 따라, 대학교의 몇 가지 또는 모든 특성을 나누며 또 탐구를 통해서건 교육 혹은 직업 훈련을 통해서건 간에 교회와 사회에 나름대로 이바지한다. 따라서 이 문헌이 특별히 가톨릭 대학교와 관련된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사람들의 영혼과 문화 안에 주입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가톨릭 고등 교육 기관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크나큰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가톨릭 대학교가 자신의 독특한 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것의 임무는 교회가 과학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와 상봉하는 데에 갈수록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로 드러난다.

나와 더불어 사목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교 형제들과 함께 나는, 가톨릭 대학교가 추호의 의심 없이 확실성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가 마련해 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들 중 하나라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자 한다. 교회는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톨릭 대학교라는 이 제도와 깊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 대학교는 탐구와 가르침을 통하여 현대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써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¹³⁾ “새롭고 동시에 묵은”(nova et vetera) 문화적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1. 끝으로 나는 가톨릭 대학교가 그리스도교 문화의 성장과 인간 발전에 근본적인 것임을 확신하면서 전체 교회에게도 이 문헌을 제시한다. 이런 연유로 인해 전체 교회 공동체는 가톨릭

릭 고등 교육 기관을 후원하고 또 그것들이 발전되고 쇄신되도록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시민 사회 안에서 이 교육 기관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또 경제적 원조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 안에 있는 기관들에게 특히 경제적 도움을 베풀며 그리고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새로운 가톨릭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일에 특별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의 법전의 지침 위에 근거한 이 규정들이 가톨릭 대학교 및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천년대를 향해 은총이 새롭게 도래하려는 이 시기에 필수 불가결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제1부 정체와 사명

A.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

1. 본질과 목표

12.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하나의 대학교로서 엄중하고 비판적 방식으로 탐구 및 교수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지역·국가·국제 공동체에 제공되는 다양한 봉사들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학문 공동체이다.14) 대학교는 자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그런 제도적 자주권을 소유하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가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자기 구성원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15)

13. 가톨릭 대학교의 목표가 사회와 문화의 중대한 문제에 대처하는 대학 세계 내에서 그리스도교적 현존을 제도적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므로16)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가톨릭적인 것으로서 아래의 근본 특징을 지녀야 한다.:

1. 개인들뿐 아니라 대학교 공동체 자체의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지녀야 한다.
2.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인간 인식의 증대되는 풍성한 보화를 꾸준히 살피야 한다. 신앙은 자신의 고유한 탐구로 인해 인간 인식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3.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대로의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존중해야 한다.
4.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 목적으로 나아가는 순례 도상에 있는 하느님 백성과 인류 가족에게 제도적인 방식으로 적극 봉사해야 한다.”17)

14. “이 네 가지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대학교에 공통되는 교수, 탐구 및 봉사 이외에 가톨릭 대학교는 제도를 통한 봉사 활동으로써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영감과 빛을 자기 사명 안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는, 가톨릭적 이상과 태도와 원칙들이 대학 활동의 고유한 특성과 자주성과 일치하여 대학 활동 내에 주입되고 스며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으로서 동시에 가톨릭적인 것으로서 인간 인식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이며 또한 아울러 가톨릭 사상이 그 안에 실제로 현존하고 작용하는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한다.”18)

15. 따라서 가톨릭 대학교는 탐구의 장소로서 학자들이 그 안에서 각 학과목에 고유한 방법

으로 실재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 그리하여 인간 인식의 보고(협庫)에 기여하는 곳이다. 모든 학과목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되며, 더욱이 여러 가지 학과목들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라는 대화의 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탐구는 남녀 모든 이가 진리를 꾸준히 추구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인식과 연구의 근본 가치에 대한 교회의 신임을 효율적으로 증거해 준다. 이런 증거는 특히 오늘날에 필요한 것이다.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의 탐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a) 인식의 통합에 대한 모색, (b) 신앙과 이성 간의 대화, (c) 도덕적 관심, 그리고 (d) 신학적 전망이다.

16. 인식의 통합은 하나의 과정, 언제나 불완전한 것으로 존속될 수 있을 과정이다. 더욱이 최근 수십 년 간 지식이 급증됨에 따라 개별 학과목들 내에서 지식이 엄격히 구획되는 한편 갈수록 대학교의 고유한 과업이 어렵게 되어 간다. 그렇지만 대학교 그리고 특히 가톨릭 대학교는 진리 추구에 헌신하는 개별 유기적 조직체들의 ‘산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도의 인식 통합을 향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인식 통합 내에서만 인간 인격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 진리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9) 대학 교수들이 만일 철학과 신학에 의해 특별히 거두어진 결실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면 복음에 의해 또한 따라서 창조와 인간 역사의 중심이신 로고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의해 계몽되는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의 맥락 안에서 다양한 학과목들의 고유한 위치와 의미를 확정하려는 꾸준한 노력에 정진할 것이다.

17. 이 같은 인식 통합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가톨릭 대학교가 맡고 있는 과제의 특수한 측면은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모든 진리의 일치를 증거하는 지가 보다 깊이 이해될 수 있도록 신앙과 이성 간의 대화를 진척시키는 일이다. 각 학과목이 그 온전성과 고유한 방법을 견지하는 반면에 모든 학문 분과 내의 방법적 추구가 진정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써 그리고 도덕적 규범들과 일치하여 시행될 경우에 실제로 신앙과 절대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같은 대화가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지상의 사물들과 신앙의 관심사들은 동일한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20) 하나의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두 가지 상이한 수준의 생생한 상호 작용은 진리 자체를 한층 더 사랑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인간 생명의 의미와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을 훨씬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18. 인식은 인간 인격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의 탐구는 항상 대학이 사용하는 방법과 발굴해 낸 발견들의 윤리적 및 도덕적 의미에 대한 관심 속에 진행된다. 이 같은 관심 속에서 모든 탐구가 진척되어야 하지만 과학과 기계 기술의 영역 내에서는 특히 그런 관심이 중요하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것에 대한 윤리적인 것의 우위성, 사물들에 대한 인격의 수위성,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을 확신해야 한다. 인식이 양심과 결부될 경우에만 인간 인격이 존중되고 봉사받을 수 있다. 학문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만일 ‘세계에 대한 인간 인격의 우위성 및 인간 인격에 대한 하느님의 초월성’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정으로 인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21)

19. 신학은 신앙과 이성 간의 대화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인식의 종합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다른 모든 학과목에 봉사한다. 즉 그 과목들로 하

여금 그 자신의 발견들이 어떻게 개인들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피도록 도와줌으로써뿐 아니라 또한 그 자신의 방법론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전망과 방향을 설정해줌으로써 도와준다. 그 대신 이런 다른 학과목들 및 그 발견들과의 상호 작용은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신학에 제공해 줌으로써 또 신학적 탐구를 현행의 요구에 보다 적절한 것이 되게 해줌으로써 신학을 풍요롭게 해준다.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신학이 학과목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특별한 중요성 때문에 신학대학(신학부)를 가지거나 적어도 신학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22)

20. 탐구와 교수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면, 위에 지적된 연구의 질은 모든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학과목이 체계적으로 또 그 고유한 방법에 따라 가르쳐지지만, 학과목들 간의 상호 연구가 철학과 신학의 주의 깊고 완벽한 연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유기적인 실재관을 익히게 해 주고 또 지적 진보에 대한 지속적 염원을 발전시키도록 해 준다. 인식의 교류 내에서는 반성하는 인간 이성이 어떻게 갈수록 보다 광범위하게 의문들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이 의문들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어떻게 신앙을 통하여 위로부터 올 수 있는지에 역점이 주어진다. 더욱이 각 학과목 안에 내포되어 있는 도덕적 의미들은 전체 교육 과정이 인격의 전반적 발전을 향해 설정되도록 그 과목에 대한 교수의 온전한 부분으로 검토된다. 끝으로 성서와 성전 그리고 교회의 교도직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가톨릭 신학은 인간 생명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 주고 또 그 생명에 새로운 품위를 부여해 줄 복음 원리들을 인식하게 해 준다.

탐구와 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게 되어 사회와 교회에 대한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특수한 분야에 참모로 유능한 자가 되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교육받는다.

2. 대학교 공동체

21. 가톨릭 대학교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 고무되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로 형성됨으로써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가톨릭 대학교를 결속하는 일치의 근원은 진리에 대한 공동 헌신, 인간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공동 안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으로서의 제도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메시지로부터 연유한다. 이 영감의 결과로 대학 공동체는 자유와 사랑의 정신에 의해 활력을 얻는다. 즉 그것은 상호 존중, 신실한 대화, 개인 권리의 보호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그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인격체로 온전히 성숙되도록 그들을 돕는다. 한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일치를 증진시키며 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그리고 제도의 독특한 가톨릭적 특징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는 데에 한몫을 다한다.

22. 대학 교수들은 일관성 있는 세계관의 테두리 내에서 개별 과목 안에서 진척되는 탐구의 내용, 목표, 방법 그리고 결과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생활 능력과 그리스도교적 지혜 간의, 그리고 직업적 통합을 명확히 드러내는 참다운 그리스도교적 삶을 증거하고 교육시키는 사명을 지닌다. 모든 교수들이 학구적 이상 그리고 참모로 인간다운 삶의 원칙들에 의해 고취되어야 한다.

23. 학생들은 인본주의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의 뛰어난 소질을 전문화된 직업 훈련과 결합시키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각별히 그들은 생애에 걸쳐 꾸준히 진리와 의미를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탄하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개인적 판단을 내리고 또 종교심과 도덕의식 그리고 사회의식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성장되는 결실이 초래되도록 인간의 정신이 함양되어야 하기”²³⁾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교적 생활 방식을 익힐 수 있게 되거나 또는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생활 방식을 강화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 직업 생활의 책임, 내일의 숙달된 ‘지도자’가 되겠다는 열정, 그 자신이 어떤 장소에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지녀야 한다.

24. 가톨릭 대학교의 총?학장과 경영인들은 봉사의 지도직을 통하여 대학과 그 공동체의 항구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비학문적 대학 임원들의 헌신과 증거는 대학교의 정체성과 생활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

25. 많은 가톨릭 대학교가 수도회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 계속 그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사도직에 헌신하는 이런 수도회들은 거듭 새로운 열정의 헌신으로써 이 교육 제도들을 후원해 주고 또 가톨릭 대학교의 사명에 적극 공헌할 수 있는 남?녀 수도자들을 계속 양성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은 대학 활동 내에서,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왔고 또 오늘날 대부분의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대학 공동체가 주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 평신도들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제도들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떠맡고 있다. 이 가톨릭인 평신도들은 “문화의 특별한 장소 즉 교육 세계 - 학교와 대학 - 안에서 용기와 지성적 창조력의 표지로서 현존해야 하는”²⁴⁾ 교회의 소명에 부응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의 장래는 가톨릭인 평신도들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봉사에 상당히 좌우된다. 교회는 그들이 이 제도 안에서 갈수록 많이 봉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는 희망의 표지이고 평신도 소명이 교회와 세계 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임을 확인해 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그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현세 사물들을 비추어 주고 관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양이 되게 할 수 있다.”²⁵⁾고 확신한다.

26. 무수한 가톨릭 제도들 중 하나인 대학교 공동체 안에는 타 교회, 타 교회 공동체와 타 종교의 구성원들 그리고 어느 종교도 신봉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양한 학과목들 또는 다른 대학 업무들을 진전시키는 데에 자신의 교육 노력을 경주하며 경험을 제공해 준다.

3. 교회 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27.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으로 존속하면서 자신의 제도적 동질성에 근본이 되는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그 자체로 지역 교회 안에 있으며 또한 따라서 지역 교회의 생활에 거의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는 학문적 제도이며 또한 따라서 학문과 탐구의 국제 공동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교육 기관은 보편 교회의 생활과 사

명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그 결과 일치에 봉사함으로써 성령과 특별한 유대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교는 전체 교회와의 일치를 드러내야 한다. 대학교가 교회와 맺고 있는 근본 관계의 한 결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학교의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대한 제도적 충실 안에는 신앙과 도덕의 사항에 있어서 행사되는 교회의 교도권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것이 내포된다는 것이다. 대학 공동체의 가톨릭 구성원들은 또한 방금 지적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 비가톨릭 구성원들은 대학교의 가톨릭적 특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반면에 대학은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 준다. 26)

28. 주교들은 정부 당국과 관련하여 가톨릭 대학교의 가톨릭적 정체성 내지는 동질성을 보호해 주는 일을 포함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또 특히 그 가톨릭적 동질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일을 촉진시키고 후원해 주는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려면 대학 당국과 교회 당국 사이에 상호 신뢰, 친숙하고 항구적인 상호 협력과 지속적 대화로 특징지어지는 긴밀한 인격적 및 사목적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주교들은 대학의 내부 관리에 직접 가담하고 있지 않을 때이라도 “외적 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가톨릭 대학교의 생활에 참여하는 동참자로 간주되어야 한다.”27)

29. 교회는 “인간 문화 그리고 특히 과학의 타당한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학과목의 고유한 원리와 방법들과 일치하여 그리고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 내에서 각 학과목 신학의 방법들 즉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를 인정한다.28)

신학은 다른 학과목들과 나란히 대학교 내에서 합법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고유한 원리와 방법을 지니므로 인식의 한 분과로 규정된다. 신학자들은 이런 원리와 방법에 충실하는 한 학자로서의 자유를 향유한다.

주교들은 신학자들의 창조적 사업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 신학자들은 신학적 방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척되는 탐구를 통하여 교회에 봉사한다. 그들은 성서와 성전 그리고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전달되는 그리스도교 계시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더 발전시키며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또한 신학의 방법들 즉 신학이 현대 문화에 의해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들을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한다. 아울러 계시 진리의 참다운 해석이 교회의 주교들에게 맡겨진 과업이고29) 또 신학이 계시 진리를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주교의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리가 가르쳐지는 권위의 정도에 따라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신학과목 안에서 진척시키는 연구와 교수의 원리 및 방법에 근본 되는 사항이다.30) 주교와 신학자 사이의 대화는 상호 관련된 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특히 오늘날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현대에는 탐구의 결실들이 너무나 신속히 또 아주 광범위하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31)

B. 가톨릭 대학교의 봉사 사명

30. 대학교의 근본 사명은 탐구를 통한 지속적 진리 추구하고 사회의 선을 위한 지식의 보존과 전달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명에 참여한다.

1.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31. 교수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에 긴요한 도움을 제공해 준다.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교 원리로부터 영감을 받고 또 성숙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받아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위치를 떠맡게 될 선남선녀들을 훈련시킨다. 더욱이 가톨릭 대학교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의 문제와 필요에 대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2. 가톨릭 대학교는 다른 모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자기 봉사의 확장으로서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고유한 능력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갈수록 효과를 발생하는 문화적 발전의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연구 활동 가운데에 내포되어야 할 것은 인간 생명의 품위,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촉진, 개인 및 사회생활의 질적 향상, 자연 보호, 평화와 정치적 안정의 추구, 세계 자원의 보다 공평한 분배, 그리고 국내?국제 수준의 인간 공동체에 더 잘 봉사하게 될 새로운 경제적 및 정치적 질서 따위와 같은 분야에서 제기되는 현대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이다. 대학 연구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와 원인들의 윤리적 및 신학적 차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으면서 그 뿌리와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모색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가톨릭 대학교는 여론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사회의 참다운 선을 수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불편한 진리들을 주저하지 말고 발언해야 한다.

33. 현대 사회와 문화의 주요한 가치들과 규범들을 그리스도교적 전망 안에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인생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윤리적 및 종교적 원리들을 사회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특별히 역설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대학교는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기초를 둔 참다운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은 실재에 그리고 삶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 신비의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34. 사회 정의의 촉진을 위하여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교 정신은 각 가톨릭 대학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교수들이 한결같이 지녀야 하고 또 학생들 가운데서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남녀 모든 이들의 온전한 성숙을 위하여 확고한 신념과 단호한 자세로 투신한다.³²⁾ 교회의 사회적 교리 안에서 해석된 복음은 “굶주림, 비참, 풍토병과 무지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문명의 혜택을 폭넓게 함께 나누고 자신의 인간적 자질들보다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려고 애쓰는 자들, 자신의 완전한 성취를 목표로 삼고 분투 노력하고 있는 자들의”³³⁾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우리를 부르는 절박한 호소이다.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사회 안에서 봉사하므로 그 사회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예컨대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 또는 보통으로 교육의 기회를 누려보지 못해 온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쉽사리 교육받을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또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새로이 부상되는 국가들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35. 인간 생활과 사회의 그토록 많은 상이한 차원에 걸쳐 있는 이런 복잡한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중에서, 가톨릭 대학교는 문제 해결의 모색에 있어서 독특하게 기여하는 상이한

학과목들 간의 상호 협력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단 하나의 교육 기관이 갖춘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톨릭 대학교들 간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립학교 및 국립 학교와도 공동 연구 계획에서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의 특수한 활동의 타 분야와 연관되는 사항들 안에서, 가톨릭 대학들 간의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연합회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 연합회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되어야 할 것은 교황청에 의해 설립된 가톨릭 대학 국제 연합회의 사명이다.³⁴⁾ 교황청은 이 연합회와의 협력, 보다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상호 협력을 예상하고 있다.

36.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제공되는 지속적 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자문 봉사에 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대적 매체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가톨릭 대학교는 성장하는 인간 인식의 집단을 형성함에 있어서 또한 보다 폭넓은 대중에게 가능한 신앙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리하여 그 자신의 학문 공동체 영역을 넘어서 대학교 봉사를 확대할 수 있다.

37. 일정한 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톨릭 대학교는 사회에 대한 봉사 안에서, 그 지역의 학문적 문화적 빛 과학적 세계와 특별히 관련을 맺어야 한다. 발전을 위하여, 문화들 간의 이해를 위하여 그리고 전 세계의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조를 맞추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가톨릭 대학교들과 타대학교들 사이에서 본래 형태의 대화와 협력이 진작되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다른 사립 및 공립 교육 기관들과 결속하여 고등교육과 탐구를 통해 공공 이익에 봉사한다.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여러 가지 상이한 유형의 제도들 중 하나이며 또한 그것은 사회와 세계 안에서 연대성과 그 의미를 촉진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교가 시민 사회와 공권력이 자신의 제도적 자주성과 학문적 자유를 인정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그것은 자신의 지속적 존재와 발전에 꼭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2. 사목적 봉사직

38. 사목적 봉사직은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종교적 원리와 도덕적 원리를 그들의 학문 연구 및 비학문적 활동들과 통합시켜 신앙을 삶에 융합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학교의 활동이다. 그것은 대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교회 사명의 일부이고 또한 그 구조와 생활에 있어서 가톨릭 대학교 자체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제도의 가톨릭적 특징을 촉진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 공동체는 이 같은 사목적 차원을 깊이 인식하고 이 직분이 모든 대학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39. 대학교의 가톨릭적 동질성을 자연스레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대학 공동체는 깊은 반성과 기도의 주요한 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매일 활동 내에서 신앙을 실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 공동체의 가톨릭 구성원들에게는 가톨릭교의 교리와 관습을 자신의 삶 안으로 동화시키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그들이 성사 거행 특히 가장 완전한 공동체 예배 행위인 성체 성사의 거행에 참여하도록 자극받아야 한다. 대학교 공동체 안에 타교회, 타교회 공동체 혹은 타종교의 신봉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여 반성하고 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40. 사목적 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교수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한층 더 자각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종교적 불의에 고통을 겪는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책임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 적용되기도 한다.

41. 사목적 봉사직은 가톨릭 학생들이 자신의 세례성사를 성취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 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비 훈련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방도이다. 즉 그것은 혼인과 가정생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익히며, 사제성소 수도 성소를 육성하고, 평신도들의 그리스도교적 투신을 자극시키고 또 모든 활동이 복음의 정신에 젖어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톨릭 대학교 안에서의 사목적 봉사 활동과 지역 교회 내에서의 다른 활동 간의 긴밀한 협력은 교구장의 감독 하에 있거나 또는 그 주교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쌍방의 상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³⁵⁾

42. 영성적 및 사도적 생활의 다양한 연합회나 운동들, 특히 학생들을 위하여 계발된 그 같은 단체나 운동들은 대학교 생활의 사목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문화와의 대화

43. 그 본질 자체로 인해, 대학교는 자신의 탐구를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가르침을 통하여 지역 문화를 각기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는 일을 도와주고 또 교육적 봉사를 통하여 문화 활동들을 후원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체험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문화와도 대화하며 그것으로부터 배우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 자신이 향유하는 문화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문화에 참여한다. 더군다나 가톨릭 대학교는 인간의 문화가 하느님의 계시와 초월성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과 문화 간의 풍요로운 대화를 위한 일차적이며 특권적인 장소이다.

44. 이 대화를 통하여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식별해 내고, 그것들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또 대화가 특정 문화의 사람들이 신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도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교회를 돕는다.³⁶⁾ 복음이 어느 특정 문화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모든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이 진실인 반면에 “복음이 선포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구현되며 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인간적 문화의 요소들이나 문화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³⁷⁾는 것도 진리이다. “인간적인 것, 따라서 문화적인 것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의 충만에 불성실한 신앙, 알맹이 없는 신앙, 더욱 나쁘게는 자기 소멸의 과정으로 치달는 신앙이 되고 말 것이다.”³⁸⁾

45. 가톨릭 대학교는 복음과 현대 사회 간의 지속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촉진시키는 방식으

로 현대 세계의 문화들에 그리고 교회 내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전통들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의 가치들을 결정짓는 기준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 되는 것은 인간 인격의 의미, 인간의 자유, 존엄성, 책임감 그리고 초월적인 것으로 향한 개방성이다. 인격체들에 대한 존경에 직결되는 것은 모든 인간적 문화의 일차적 구성단위인 가정의 우선적 가치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현대 문화가 개인과 백성의 전반적 발전에 보다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문화의 열망과 모순을 알아내고 평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적절한 탐구를 통하여 현대의 기계 기술 그리고 특히 대중매체가 사람들, 가정, 제도 및 현대 문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 문화는 그 동질성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 문화가 자기 유산 곧 인류 가족 전체를 위한 재산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대적 가치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화의 환경 내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는 지역 문화를 현대 문화의 긍정적 요소들과 융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46. 가톨릭 대학교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영역은 그리스도교 사상과 현대 과학 간의 대화이다.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별 학과목들에 능통하고 또한 동시에 신학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신앙과 이성 간의 관계 차원에서 인식론적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필요하다. 그 같은 대화는 새롭고 복잡한 철학적 및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인문 과학들 뿐 아니라 자연 과학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연구원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보다 높은 진리에 의해 인간 지성을 풍요롭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능은 깊은 이해의 내적 원천 즉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연유되는 가치들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결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자극받고 강화된다.…… 가톨릭 대학교는 정신의 우위성을 드러내는 데에 도와준다. 정신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릴 위험을 겪지 않으며 진리 추구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봉사절대 이용될 수 없다.”39)

47. 문화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특수한 목표에 일치하여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 문화적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반포된 지침을 따르면서 교회 일치성을 위한 대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대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 추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타종교들과의 대화 중에 대학교는 상이한 종교들 안에 현존하는 영적 가치들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복음 선교

48. 교회의 으뜸가는 사명은 각개인이 그 안에서 살며 행동하고 상호간에 교류하는 그 사회 - 문화적 상황 그리고 개인적 상황 안에서 신앙과 생활의 관계가 설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복음 선교란 “기쁜 소식을 모든 계층의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키고 쇄신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가능한 보다 넓은 지리적 영역 안에서 또는 최대한 많은 수효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말하자면 그 기준들을 전복시키고, 하느님의 말씀 및 구원 계획과 대조되는 영감의 원천과 생활 유형, 가치, 관습, 사고 노선들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40)

49. 각 가톨릭 대학교는 그 본질 자체로 말미암아 교회의 복음 선교 과업에 막대한 공헌을 한다. 대학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산 제도적 증인으로서 세속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문화 내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가 아직도 실제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더욱이 가톨릭 대학교의 모든 근본적 학문 활동은 교회의 복음 선교 사명에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즉 탐구 활동은 새로운 인간적 발견들을 개인과 사회에 대한 봉사에 이용되게 해 주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빛 안에서 전개되고, 교육은 합리적이고 비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인간 인격의 초월적 존엄성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신앙의 맥락 안에서 실시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봉사 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깊이 심어주는 직업 훈련 그리고 신앙을 보다 친숙한 것이 되게 해주는 문화와의 대화 또는 신앙을 현대 언어로 쉽게 풀이해 주는 신학적 탐구 따위가 그리스도교적 대학 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자신의 구원 사명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런 연구소들을 갖고자 한다. 즉 교회는 그 연구소들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또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기관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또 후원한다.”41)

제2부 일반적 규범

제1조 일반적 규범의 근본 성격

① 이 일반 규범들은 교회 법전 위에 근거한 것이고 교회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며42) 또한 교회법을 보완하는 법 제정으로 인해 교황청의 중재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필수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 규범들은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다른 가톨릭계 고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다.

② 일반 규범들은 각 대학교나 교육기관의 정관들 그리고 가능한 한 관련 시민법을 고려하면서, 교회 법전 및 교회법 보충 제정에 일치하여 주교회의에 의해 그리고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 회의에 의해 지역 또는 지방의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교황청에 의한 재검토를 거친 후에44) 이 지방적 또는 지역적 “법령”들은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그 지역의 모든 가톨릭 대학교와 다른 가톨릭계 고등 교육 기관들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가톨릭 대학교의 부분인 교회 대학들을 포함한, 교회 대학교 및 대학은 교황령 Sapientia Christiana45)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③ 교황청, 주교회의에 의해서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 회의에 의해서 또는 교구장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승인받는 대학교는 이 규범들을 그리고 지역 또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법규들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현 정관들을 일반 규범과 적용에 순응시켜야 하고 그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른 가톨릭 대학교 즉 상기 어느 방법에 의해서, 지역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에 의해 설립되지도 승인받지도 아니한 대학교는 지역 또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용시킨 법규들을 자신의 관련 서류 안에 반영시킴으로써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고 또 가능한 한 현정관들을 이 일반 규범들과 그 적용 법규들에 순응시켜야 할 것이다.

제2조 가톨릭 대학교의 본질

① 가톨릭 대학교는 모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간 인식의 여러 분야들을 대표하는 학자들

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자신의 문화적 사명과 일치하여 탐구하고 가르치며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② 가톨릭 대학교는 가톨릭적인 것으로서 가톨릭적 이상, 원리 및 태도로 탐구하고, 가르치며 다른 활동들을 전개한다. 그것은 형식적, 구성적 및 법령적 관계로 인해서든 또는 책임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적 투신으로 말미암아서든 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다.

③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공인받은 경우 외에는, 사명 진술문 안에 또는 다른 어떤 적절한 공적 문서 안에 자기 자신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명시해야 한다. 대학교는 특히 자신의 구조와 법규를 통하여 ②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가톨릭적 정체성의 표현과 보존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방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④ 가톨릭적 교리와 규율이 모든 대학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한편 각 인격의 양심의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46) 대학교의 모든 공적 활동이나 임무 수행은 그 자신의 가톨릭적 정체성과 일치되어야 한다.

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주권을 소유한다. 연구와 교수의 자유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가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 내에서 보존되는 한 각 개별 학과목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존중되는 것이다.47)

제3조 가톨릭 대학교의 설립

① 가톨릭 대학교는 교황청, 주교회의에 의해 또는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 회의, 교구장에 의해 설립되거나 승인받을 수 있다.

② 교구장의 동의 하에, 가톨릭 대학교는 수도회 또는 다른 공동 법인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다.

③ 가톨릭 대학교는 그 외의 다른 교회 사람이나 평신도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는 교회 관할권자와 설립자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들과 일치하여, 관할권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톨릭 대학교로서의 명칭을 지닐 수 있다.48)

④ ①과 ②의 경우에 정관은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 대학교 공동체

① 대학교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학교 자체에 주어진다. 이 책임은 주로(지위가 있을 경우에, 대학교 총장이나 이사진 혹은 그와 유사한 경영진을 포함한) 대학 당국자들에 맡겨지는 반면에 대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도 정도에 따라 조금씩 그 책임을 나누어 맡고 있으며 또한 따라서 이 책임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대학교 직원들, 특히 가톨릭적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증진시키려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교수와 직원들이 충원되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자질과 가톨릭 교리에 대한 존중과 연관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근본 요소가 교회법 안에 명시되어 있는 바49)와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관할권자의 책임이다.

② 모든 교수와 모든 직원은 임명받을 때에 제도 및 그와 관련된 사항들의 가톨릭적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정체성을 증진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존중해야 할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③ 상이한 학과목에 적절한 방식으로써, 모든 가톨릭 교수들은 자신의 탐구와 교수 활동에 있어서 가톨릭 교리와 윤리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모든 교수들도 그것들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 자신이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성서

와 성전을 정확히 해석하는 교회의 교도권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50)

④ 타교회, 타교회 공동체 또는 타종교에 속하는 대학 교수와 직원들은 물론이고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그들과 모든 학생들도 대학교의 특유한 가톨릭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비가톨릭 교수의 수요가 대학교나 고등교육기관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제도 내에서 다수를 이루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톨릭 대학교는 제도적으로도 가톨릭적이고 또 여전히 가톨릭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⑤ 학생 교육은 학문적 및 지적 발전을,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원리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통합시켜야 한다. 즉 다양한 모든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강의 프로그램 내에는 적절한 도덕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톨릭 교리 강좌가 개설되어 모든 학생들이 청강할 수 있어야 하겠다.51)

제5조 교회 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①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보편 교회 및 교황청과의 친교를 유지해야 한다. 즉 대학교는 지역 교회와 그리고 특히 그것이 소재해 있는 지역이나 나라의 교구장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으로서의 자기 근본 성격과 부합되는 방식으로써 교회의 복음 선교 과업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② 각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가톨릭적 특성의 보존과 강화를 감독하는 권한과 의무를 진다. 이 같은 가톨릭적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지역 교회의 교구장은 기존 절차와 부합되어52)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황청의 도움을 받아 해당 대학 당국자들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3조의 ①과 ②에서 언급되고 있는 각 그 가톨릭 대학교는 정기적으로 대학과 활동에 관한 관련 정보를 교회 관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사목적 봉사직

①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증진시켜야 하고 또 특별히 가톨릭인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적 학습을 생활의 종교적 차원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가톨릭 교리에 비추어 인간적 및 전문적 교육을 종교적 가치들에 통합시키는 일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② 대학 공동체를 위한 사목적 봉사, 교구장의 지도하에서 또는 승인을 받아 지역 교회의 사목적 활동들과의 조화와 협력 속에서 전개되는 사목적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 -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 - 의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목적 봉사의 과업을 거들어 주고 또 그 활동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7조 협력

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육기관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상호 협력이 탐구와 교수 그리고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을 포함한 모든 가톨릭 대학교들 가운데서 전개되는 다른 대학 활동 내에서 증진되어야 한다.53) 그러한 협력은 또한 가톨릭 대학교와 타대학교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연구와 더불어 또한 사립, 국립의 교육 기관들과 더불어 촉진되어야 한다.

② 가톨릭 대학교는 가능하다면 또 가톨릭적 원칙과 교리에 일치되어 정의와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가 및 국제기구의 프로그램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잠정적 규범

제8조 이 교황령은 1991년 학기 개학날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제9조 교황령의 적용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들을 반포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가톨릭 교육성에 위임되어 있다.

제10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이 요구할 경우에 이 교황령 이 가톨릭 대학교의 요구들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이 교황령 안에서 변경을 제안하는 것은 가톨릭 교육성의 권한에 속한다.

제11조 이 교황령에 상반되는 시행 중의 특별한 법률이나 관습들은 모두 폐지된다. 또한 이 교황령에 상반되는 특권으로서 교황청이 가시적 또는 불가시적인 실질적 인물에게 이 날까지 부여해 준 모든 특권은 말소된다.

결 론

교회가 크나큰 희망을 갖고 가톨릭 대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사명은 인류와 미래 자체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문화적 및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 대학교에게서 요망되는 쇄신에 힘입어 대학교는 인간에게, 사회에, 다양한 문화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과제에 더 잘 호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실재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인간의 모든 실재는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었다. 사람들뿐 아니라 남녀 모든 인간의 활동 그리고 문화까지도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해방시키는 교회의 구원 행위는 무엇보다도 인간 인격, 가정 및 교육자들에 의해 완수된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학문과 예술과 그리고 현대 문화에 문학 의해 발전되는 무수한 분야를 촉진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 빛과 희망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또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개별 문화뿐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파생된 견해와 정신 태도들에도 영감을 주는 주요한 가치와 사고방식에 침투하여 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깨달아야 한다.”⁵⁴⁾

열렬한 바람을 가지고 나는 갖가지 방식으로 가톨릭 고등 교육의 중대한 사명에 종사하는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헌을 제시하는 바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갈수록 한층 더 중요해지고, 모든 문화의 장래를 위한 복음 선교를 위하여 갈수록 한층 더 절박하고 필수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는 중차대한 일상 과제를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변함없는 격려와 신뢰를 약속한다. 교회와 세계는 여러분의 증거 그리고 유능하며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공헌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12년,

199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주(註)

- 1) 참조. 교황 알렉산더 4세가 1255년 4월 14일 파리 대학교 앞으로 보낸 서한, 서문, 외교 칙서……3권, 포리노 1858. 602면.
- 2)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X, 23,33: “실상, 나의 하느님, 내 얼굴의 구원이며, 나의 빛이신 하느님이여,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은 진리이신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복된 삶은 이 기쁨 안에 있나이다.” (PL 32, 793 - 794). 참조. 성 토마스 아퀴나스, De Malo IX, 1: “진리에 대한 인식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자연스런 일이다.”
- 3)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6월 1일, 파리 가톨릭 대학에 행한 연설,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ol III/1(1980), 1581면.
- 4) 요한 바오로 2세, 1979년 11월 10일 추기경들에게 행한 연설: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ol II/2 (1979). 1096면; 참조. 1980년 6월 2일 파리 유네스코에서 행한 연설: AAS 72(1980), 735-752면.
- 5)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1982년 5월 15일 꼬임브라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ol- V/2(1982), 1692면.
- 6) 바오로 6세, 1965년 10월 4일 유엔의 국가 대표단에게 행한 담화: 바오로 6세의 가르침, Vol III (1965), 508면.
- 7) 존 헨리 뉴먼 추기경, 대학의 이상, 런던,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31, XI면.
- 8) 요한 14,6.
- 9) 참조. 성 아우구스티노, Semi- 43, 9: PL 38,258; 참조. 성 안셀모 Proslogion, 제1장: PL 158,227.
- 1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 1989년 4월 25일 가톨릭 대학교 국제회의에서 행한 담화 3항: AAS 18 (1989), 1218면.
- 11)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 반포령 Sapientia ChrlStiana, 1979년 4월 15일, 반포: AAS 71(1979), 469- 521면.
-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 교육 선언 10항: AAS 58(1966), 737면.
- 13) 마태 13, 52.
- 14) 참조. 유럽 대학교의 대헌장, 볼로냐, 이탈리아, 1988년 9월 18일, “기본 원리”.
- 15)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9항: AAS 58(1966), 1080면, 그리스도교 교육 선언 10항: AAS 58(1966), 737면. “제도적 자주성”이란 학문적 제도 즉 교육 기관의 관리가 제도에 본질적이며 또 본질적인 것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문의 자유”는 가르침과 탐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증으로서 학자들은 이 보증에 힘입어 자신의 특수한 전문화된 인식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 고유한 방법을 따라, 분석과 증거가 이끄는 대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또 인용된 기준들을 염두에 두면서 즉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과 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 탐구의 결과를 가르치고 출판할 수 있는 것이다.
- 16) 이 문헌 안에는 문화의 이중 개념 즉 인본주의적 개념과 사회 - 역사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란 넓은 의미로는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용하는 모든 사물을 말한다. 인간은 지식과 노동으로써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하며 가정과 온갖 시민 사회에 있어서 관습과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생활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며 마침내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위대한 정신적 경험과 소망을 그 작품 속에 표현하고 전달하며 보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전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인간 문화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내지 사회적 측면을 보여 주며 ‘문화’란 말은 사회학적 내지 인종학적 뜻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3항: AAS 58, 1966, 1075면).

17) 현대 세계 안에서의 가톨릭 대학교, 1972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가톨릭 대학교 대표단 회의의 최종 문헌, CD.

18) 상동.

19) 요한 바오로 2세, 1989년 4월 25일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행한 담화 4항: AAS 81(1989), 1219면;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61항: AAS 58(1966), 1081-1082면. 뉴먼 추기경의 표현에 따르면 대학교는 “그 자신이 받아들이는 각 연구에 그 고유한 위치와 그 정당한 한계를 지정해 준다고 공언한다. 즉 권리를 정해 주고, 상호 관계를 설정해 주며 연구들 간의 상호 교류를 이루게 해준다고 주장한다”(전게서, 457면).

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36항: AAS 58 (1966), 1054면, 일단의 과학자들에게 나는 이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과 신앙은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인식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각기 그 자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그 둘은 결국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전실재의 발견에 합류되어야 한다”(요한 바오로 2세, 1983년 5월 9일 갈릴레오에 대한 모임 중에 행한 연설 3항: AAS 75, 1983년, 690면).

21)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6월 2일 유네스코에서 행한 연설 22항: AAS 72(198이, 750면. 인용구의 마지막 부분은 1979년 11월 10일 교황 창립 과학 기술원을 겨냥해서 한 말이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ol. II/2(1979), 1109면.

22)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 교육 선언 10항: AAS 58(1966), 737면.

2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9항: AAS 58 (1966), 1080면. 뉴먼 추기경은 추구되어야 할 이상을 이와 같이 묘사한다.: “자유, 공명, 평온, 절제와 지혜를 그 속성으로 지니는 마음의 습성은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양성되는 것이다”(전게서 101-102면).

24) 요한 바오로 2세, 주교 시노드 이후 1988년 12월 30일에 반포된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44항: AAS 81(1989), 479.

2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1항: AAS 57 (1965), 37 - 38면; 참조. 평신도 교령, 곳곳에: AAS 58(1966), 837면 이하; 참조. 사목 헌장 43항: AAS 58(1968), 1061 - 1064면.

26)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 선언 2항: AAS 58(1966), 930 - 931면.

27) 요한 바오로 2세, 1987년 9월 12일 미국 루이지애나 사베리오 대학교에서 가톨릭 고등 교육 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 4항: AAS 80(1988), 764면.

2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9항, AAS 58 (1966), 1080면.

29)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헌장 840항: AAS 58(1966), 820-822.

30)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25항: AAS 57(1965), 29-31면.

31) 참조. 1990년 5월 24일자로 반포된 신앙교리성의「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3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27-34항: AAS 80(1988), 547-560면.

33)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 1항: AAS 59 (1967), 257면.

34) “그러므로 고등 학습 연구소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증가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에 대학과 학생들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결속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 명백하다. 그래야 대학과 학생들이 그 같은 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이고 보편적 박사인 교황 성하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

을 것이다”(비오 12세, 사도적 서한 Catholici Studiorum Universitates: AAS 42, 1950년, 386면; 이 문헌과 더불어 가톨릭 대학교 국제 연합회가 설립되었다).

35) 교회법전은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주교의 전반적 책임을 지적한다.: “교구장은 학생 사목을 깊이 배려하여 본당 설립하거나 적어도 사목구를 이를 위하여 고정적으로 사제들을 선임하고, 또한 비가톨릭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에 가톨릭 대학교 센터를 세워 젊은이들에게 도움 특히 영성적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813조).

36) “교회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선포하며 설명하고,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여 깨닫고 전례와 여러 계층의 신자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문화의 소산을 이용해 왔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8항: AAS 58, 1966년 1079면).

37) 바오로 6세, 사도적 권고 「현대 세계의 복음 선교」20항: AAS 68(1976), 18면,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8항: AAS 58(1966), 1079면.

38) 요한 바오로 2세, 1986년 7월 5일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지성인들, 학생들 및 대학교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 3항: AAS 79(1987), 99면;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AAS 58 (1966), 1079면.

39) 바오로 6세, 1972년 11월 27일 가톨릭 대학교 국제 연합회 대표단에게 행한 연설: AAS 64(1972), 770면.

40) 바오로 6세, 사도적 권고 「현대 세계의 복음 선교」18항 이하: AAS 68(1976), 17 -18면.

41) 바오로 6세, 1975년 8월 6일 예수회 대학교 총장과 학장들에게 행한 연설 2항: AAS 67(1975), 533면. 나는 1989년 4월 25일 가톨릭 대학교 국제회의의 참석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언하였다(5항):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 교회의 복음적 사명과 탐구 및 교수의 사명은 상호 연관되고 또한 통합된다”, 참조. AAS S1(1989), 1220면.

42) 참조. 특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교회법전 807-814조).

43) 주교회의는 라틴 관례를 따라 결성된 것이고 다른 관례는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 회의를 가지고 있다.

44) 참조. 교회 법전, 455조 ②.

45) 참조. 교황령 Sapientia Christiana: AAS 71(1979), 469-521면. 교회 대학교와 대학은 교황청의 권위에 의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이다.

46)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 선언 2항: AAS 58(1966), 930-931면.

47)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57항과 59항: AAS 58(1966), 1077-1080면, 그리스도교 교육 선언 10항: AAS 58(1966), 737면.

48) 그런 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것이 가톨릭 대학교라는 명칭을 가칠 수 있으려면 모두 교황청, 주교회의 또는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 회의에 의해 반포된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49) 교회법전 810조는 이 영역에서의 관할권자의 책임을 명시한다: “① 정관에 따른 관할권자는 학문적 및 교육자적 자격 외에도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난 이들이 가톨릭 대학교의 교원들로 임명되고, 또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면 정관에 규정된 임무에서 절차를 밟아 그 해임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②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들은 이들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규범의 뒤에 명시되고 있는 제5조 ②도 참조할 것.

5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25항: AAS 57 (1965), 29면; 계시 헌장 8-10항: AAS 58(1966), 820 - 822면; 참조. 교회 법전 812조: “어느 고등 교육 기관에서든지 신학 과목을

강의하는 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1) 참조. 교회법전 811조 ②.

52) 3조 ①과 ②가 언급하고 있는 대학교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인준을 받은 대학교 정관 안에 확정되어야 한다. 다른 가톨릭 대학교를 위해서는, 그 절차가 주교회의 또는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 회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53) 참조. 교회법전 820조, 참조 *Sapientia Christiana*, 적용 규범, 49조: AAS 71(1979), 512면.

54) 요한 바오로 2세, 1989년 1월 13일 교황청 문화위원에게 행한 연설 2항: AAS 81(1989), 857-858면.